



나의 꿈을 찾아서

김지은/한국청소년상담원 사이버상담파트 상담원

출 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밤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온 상담 편지들이 몇 통씩 와 있다. — 심지어는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로부터 온 편지도 있었다. 그때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상담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e-mail로 오는 상담편지에는 각각각색의 고민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업이나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학과나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편지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 진로와 관련해서 신뢰가 가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주변의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은 성적에 맞추어서 적당한 학교를 선택하게 하기 쉽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흔히 법학과나 의과, 전자공학과 등 사회에서 지위나 명성이 보장된 길을 선택한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대학교에 들어가고 보지는 식으로 자신이 받은 점수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찾는다.

직업과 관련해서 가지기 쉬운 잘못된 믿음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잘 맞는 일 한 가지가 미리부터 있는데, 그것을 못 찾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경우이다. 물론 뛰어난 음악가나 예술가처럼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거나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최선의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자신의 성격, 능력, 흥미, 동기,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기이해가 없이는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상황에 쫓겨서 결정을 내리다보면 흔히 간과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을 위해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같은 심리검사들을 받아볼 수도 있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느 것도 정확하고 확정적인 답을 찾아주진 않는다.

결국 그 답은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실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풍토는 자기를 탐색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장(場)을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풍토가 그렇다고 자신의 진로를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자기탐색의 기회를 학교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과외활동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확장 시절을 이렇게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학교생활이 그렇게 무의미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 관련 지도자들의 인식과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들을 실험해보고 꿈 꾸어보며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고 열린 장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도 갖게 하자.